

# 유아교육과 지원자의 유아에 대한 이미지와 입학 후 유아에 대한 이미지 변화 연구

## A Study on Changes in the Images of Children Possessed by Applicants for th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fter They Enter the Department

성원경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Won-Kyung Sung(wksung@wsu.ac.kr)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교육과 지원자의 유아에 대한 이미지를 살펴보고 합격자를 대상으로 유아교육 전공 1학년 과정을 마친 후 유아에 대한 이미지가 변화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유아교육과 지원자 328명과 합격한 후 1학년을 마친 25명이었다. 자료수집방법은 그림 그리기 은유를 사용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내용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아교육과 지원자들의 유아에 대한 이미지는 '정성, 사랑, 관심이 필요한 존재',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 존재', '자유분방하고 개성이 있는 존재', '밝고 순수하여 행복을 주는 존재', '학습과 성장 잠재력을 가진 존재' '여리고 연약한 존재'로 나타났고, 입학 후 1년이 지난 시점에는 교사로서 자신이 가르쳐야 하는 대상으로 이해하고 유아기에 대한 발달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이미지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주었다.

■ 중심어 : | 유아 | 이미지 | 은유 |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the images of children possessed by applicants for th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find out how the images of children have been changed when the applicants have entered the department from successful applicants. Study subjects were 328 applicants for th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25 students who passed the entrance examination and completed the first year. Data were collected by painting metaphors and the contents of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the images of children possessed by applicants for th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were 'beings that require sincerity, love, and attention', 'beings that must be taught and led', 'beings that are liberal and characterful', 'beings that are bright and pure and give happiness', 'beings that have potential for learning and growth' and 'beings that are soft and weak' and when one year had passed after the entrance into the department, the images of children possessed by the students were changed into the subjects of teaching by the students as teachers and images based on developmental knowledge of childhood.

■ keyword : | Children | Image | Metaphor |

## I. 서론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이미지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받는 느낌으로, 인간이 어떤 대상에 대해 가지는 신념이나 인상의 총체이며 어떤 사물이나 장소에 대해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는 주관적인 지식, 인상, 상상력, 감정 등을 나타낸다[1].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과 관련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게 되고 사람을 대상으로 가지게 되는 이미지는 그 대상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과 역할 기대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대상과의 관계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2][3]. 예를 들면 성인이 자녀 혹은 아동이라는 존재에 대해 형성된 이미지는 자신의 자녀관과 연관되어 자녀에 대한 기대와 양육태도를 형성하게 되고 교사가 가지는 학생에 대한 이미지는 교수방법과 학생지도 시 상호작용 유형과 관련이 된다[4]. 즉, 이미지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5]. 따라서 사람에 대한 이미지 중 유아 혹은 아동에 대한 이미지는 유아를 어떻게 바라보는 지 즉, 유아관을 나타내며 이는 곧 유아를 양육하거나 교육하는 내용과 방법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유아에 대한 이미지 연구는 동화 속에 나타난 어린이에 대한 이미지[6], 미술작품에 묘사된 유아에 대한 이미지[7], 사상가들의 사상 속에 비취진 아동관[8] 등이 있으며 현대 사회에서 유아에 대한 이미지는 유아대상의 상품 광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통적 유아관을 살펴볼 수 있는 속담에서는 교육을 잘 시켜야 하는 존재(예를 들면, “귀여운 애에게는 매체를 주고 미운 아이에게는 엿을 준다”, “귀한 자식 매로 키워라” [9])이면서 매우 귀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예를 들면, “늙은이는 팔시해도 아이들 팔시는 안 한다”)[9]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속담에 나타난 유아관은 유아를 유용한 인간으로 유도하여 사회에 꼭 필요한 인간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논리적 사고의 생활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0]. 조선후기 풍속화에서 인식한 아동은 가족과 노동, 그리고 놀이와 학업이라는 생활 범주 속에서 존재하였으며, 사회적 구성원, 가족의 중요한 존재

로서 여아보다 남아가 더 가치 있다고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11]. 20세기 초 우리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던 시기에 소과 방정환은 「사랑의 선물」, 어린이날 선포 선언서 등에서 이전의 전통적 아동관과는 구분되는 어린이의 자율성과 자기 활동성을 강조하는 사상을 펼쳤다[8].

현대적 유아관은 유아 대상 상품 광고에서 엿볼 수 있다. 매일 각종 매체를 통해 볼 수 있는 유아용 상품 광고를 보면 두뇌를 발달시키는 성분이 포함된 분유와 요구르트로부터 과학적으로 공부시키는 학습지, 아이들의 눈높이에 딱 맞추어 가르치는 학습지, 신기한 영어, 튼튼한 영어 등 ‘똑똑이 이테올로지’[12]가 유아에 대한 이미지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광고에 나타난 유아 이미지는 잠재력은 있으나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유아 이미지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TV 광고에 나타난 유아의 내적 이미지는 순수하고 맑은, 희망적이고 밝은, 소비적이고 의존적인 이미지로 나타났으며 미디어에 나타난 유아에 대한 이미지와 관련하여 교육현장과 가정에서 부모나 교사가 가지고 있는 유아에 대한 이미지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13].

교사가 유아에 대해 어떤 아동관을 갖는지에 따라 언어적 상호작용 유형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보고[14]가 있었던 바와 같이 교사가 가지는 유아에 대한 이미지는 교사가 유아를 어떻게 바라보는 지 즉, 유아관을 나타내며 이는 곧 유아를 교육하는 내용과 방법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교사가 가르치는 대상에 대해 가지는 이미지가 교육철학과 교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아에 대한 이미지와 관련된 연구는 유아교사교육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교사들이 어떤 철학적 관점을 갖고 유아를 교육하는가는 교육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주고 교수방법과 평가방법이 달라지며[15], 교사의 교육철학 중 교육대상인 유아를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는가는 교육내용과 교수방법선정 및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14][16].

특히 교사로서 교육관을 확고히 형성하기 이전 단계에 있는 예비교사가 유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이해

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유아에 대한 교사의 철학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교사양성과정에서 고려하고 반영해야 할 교사교육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또한 최근 교사교육의 경향인 인지적 구성주의 입장 [17-19]에서 볼 때, 교수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학습자인 예비유아교사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여 그에 기초하여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지적 구성주의의 견해로 보면 교사교육 양성과정에서 예비교사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형성하고 있는 신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예비유아교사들이 교사양성과정 이전에 가지고 있는 유아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기초로 교사양성과정을 통해 예비유아교사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유아관이나 지식 등이 수정, 강화, 보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앞의 논거에 따라 유아교육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유아에 대한 이미지와 교사양성과정에서 예비유아교사의 유아에 대한 이미지가 변화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예비유아교사의 유아관, 더 나아가 교사의 역할과 관련되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유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 이미지에 따라 교사가 되었을 때 교수 스타일과 역할 수행 방식이 어떠한 지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비유아교사의 유아에 대한 이미지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몇몇 연구들이 있는데, Lin은 유아교육과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실체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예비유아교사는 교사양성과정을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특별한 교수(teaching)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20]. 이러한 이미지는 본인의 경험과 행동으로 옮겨질 때 표상되는 지식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교사교육자들은 이러한 예비교사가 형성하고 있는 이미지를 기초로 교사양성교육과정의 틀을 계획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외모와 같이 객관적인 정보에 의해 형성되기도 하지만 관찰된 특성과 개인의 경험이나 감정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이미지의 속성으로 인해 동일한 대상에 대한 이미지가 사람마다 다르게 그려진다[21]. 타인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은

인상과 태도를 구성하는 도구이며, 이미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에 변화를 가져와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2]. 즉, 타인에 대한 이미지는 타인에 대한 지식과 역할 기대와 관련이 있으며, 향후 상호작용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일단 형성된 이미지는 시·공을 초월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므로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사회심리학적 접근에 의하면, 개인이 형성한 이미지는 쉽게 변화하지 않으며 주변의 정보와 메시지를 수용하고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22]. 또한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에서 이미지와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이미지를 개인의 행동 이해와 관련 지어 개인의 행동은 이미지에 의존하고 있음을 강조한다[23][24].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교사가 되기 이전 양성과정에서 형성된 유아에 대한 이미지는 교사가 되어서도 변화하기 어려우며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 보듯 이미 형성된 유아에 대한 이미지가 교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듯 이미지 형성에는 개인의 경험과 사회문화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6-8][12] 이미지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한 번 형성된 이미지가 변화되기 어려운 것이라면 실제 교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이전인 교사양성과정에서 유아에 대한 이미지 형성을 지원하는 것 또한 중요해진다. 따라서 예비유아교사의 입학 전 유아에 대한 이미지를 알아보고 필요한 경우 입학 전에 형성된 이미지를 변화시키거나 교사양성과정을 통해 가르치는 대상으로서 유아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유치원 교육과 관련한 교사 혹은 가르치는 일에 대한 이미지를 알아본 연구들[25-28]은 예비교사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 이미지'를 알아본 것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미지를 알아본 방법은 언어를 통한 은유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 가지는 이미지를 알아보는 방법 중 시각적 표현 즉, 그림을 통한 이미지를 알아보는 것은 언어표현을 통한 이미지에 비해 잘 드러나지

않는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의 사고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다[29].

Adler(1982)에 따르면 그림을 그리는 것은 개인이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개인적 감정과 태도를 나타내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특정한 문화적 환경에 대한 집단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라 하였다[29]. 즉, 그림을 그리고 평가해보는 것은 교사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줄 수 있는 교사에 대한 사람들의 입장 뿐 만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으로[30],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형화된 입장에 대해 중요한 반성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림 그리기는 언어적 서술로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인간의 분별력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또한 그림 그리기는 가르치는 일에 대한 정체성을 평가해보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된다.

눈을 통해서 본 것을 나타내는 것은 독특한 사회학적 기능을 갖는데, 보여 진 세상에 대해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함축, 즉, 서로의 직접적인 일견이 어떻게 인식, 승인, 이해, 친밀감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되는지를 보여준다[31]. 인간이 본다는 것은 심리적인 것이며 대 너의 명령을 받으며[32], 시각을 가장 포괄적이고 고귀한 감각으로 여겼던 데카르트는 시각적 재현의 가능성을 인식하였고[33], 이미지를 사용한 의사소통의 위치가 상승하고 있으며[34], 수학에서는 이미지가 문제해결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등[35], 눈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평가해보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그림 그리기를 통해 학생들이 가진 정서적 이미지를 분석하는 것은 본래 Finson이 50년간 종단적으로 실시해온 과학자들에 대한 이미지 분석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으로, 완성된 그림을 통해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태도나 과학학습에 대한 효능감 수준, 미래의 작업 선택 등을 유추하는데 있어 효과적이라는 방법적 의의를 갖는다[36].

개인이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갖는 이미지가 순간의 경험치가 아닌 누적적으로 기록된 경험치가 형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림 그리기를 통한 이미지 분석 방법은 예비유아교사들의 경험을 회상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과학교육에서는 DASTT(Draw-A-Science-Teacher-Test Checklist)라는 도구를 개발하여 2000년대부터 객

관적으로 과학교사의 이미지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 해오고 있으며[37], 최근 우리나라 과학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이 도구를 활용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그림그리기를 통한 이미지 연구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최근에 그림을 통한 이미지 분석이 유아교육분야에서도 행해졌다[38-40]. 연구결과, 예비유아교사가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함양해 나가는 과정을 탐색하여 그림을 통한 은유 이미지 표현이 예비유아교사들의 유아교사에 대한 자아정체감과 교수학습방법 변화에 영향을 주는 등 그림 은유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이 도구가 교사양성교육과정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어오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은유를 통해 알아볼 수 있는 교사가 가지는 자신과 수업에 대한 이미지로 표현되는 신념이나 태도는 교수 실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고, 이러한 이미지 교사양성과정 동안 변화하기도 하는 것으로, 예비교사의 교사와 교육에 대한 이미지와 이미지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바람직한 교사 역할을 실행하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예비교사가 자신이 가르치게 될 대상인 유아에 대한 이미지는 교사역할과 교수스타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의미 있는 일이다.

이상과 같은 논거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과 지원자의 유아에 대한 이미지를 살펴보고 합격자를 대상으로 입학 후 유아에 대한 이미지가 변화 및 변화하게 된 이유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유아교육과 지원자 및 합격자를 대상으로 유아에 대한 이미지를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예비유아교사교육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였으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교육과 지원자의 유아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교육 전공 지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유아에 대한 이미지는 유아교육 전공 1학년 과정을 이수한 후 변화가 있는가? 만약 변화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4년제 A대학 유아교육과 수시 입학전형 지원자 328명과 수시 지원자 중 합격하여 1학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 25명이다. 1학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교양 7개 교과목(외국어1, 외국어2, 자기계발과 리더십, 진로탐색과 생애설계, 컴퓨터 활용, 읽기와 토론, Freshman Seminar), 교직 2개 교과목(교육학 개론, 교육철학, 교육봉사 1)과 전공 6개 교과목(유아교육 개론, 아동발달, 유아미술교육, 논리 및 논술, 정신건강론, 유아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 수시 전형 지원자에게 유아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고 그림에 대한 서술을 작성하여 제출한 344명의 자료 중 그림과 서술 중 한 가지라도 작성하지 않은 자료 16부를 제외한 328명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고 그 중 합격하여 1학년을 마친 재학생 2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2. 연구도구

유아교육과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유아에 대한 이미지와 입학 후 유아에 대한 이미지 변화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은유를 사용하였다. 은유는 개념의 특성을 잘 나타내며 감춰진 다른 측면에 대한 통찰도 보여준다[41]. 이미지는 개인적 경험, 가치, 지식이 사고와 감정에 영향을 주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적인 방식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한 도구로 그림 은유를 사용하였으며 선행연구[38-40][42]를 참조하여 [그림 1]과 같은 조사 도구를 구성하였다.

<p>‘유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려보세요.</p> <hr/> <p>그림을 그린 후 그림에 대한 설명을 가능한 자세히 적어주세요.</p>
<p>예: 엄마를 ‘털옷’으로 그림</p> <p><b>엄마는 우리를 포근하게 해주고 내가 춥지 않을 때는 생각하지 않지만 추워지면 언제라도 꺼내 입을 수 있는 털옷과 같다고 생각</b></p>

그림 1. 그림 이미지 작성 양식

###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료 수집은 그림그리기와 그림에 대한 서술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은 1차와 2차로 이루어졌으며 1차 자료 수집은 유아교육과 지원자의 유아에 대한 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해 2014학년도 10월 수시 전형에 지원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2차 자료 수집은 유아교육과 입학 1년 후 유아에 대한 이미지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1차 자료 수집 대상자 중 합격하여 1학년을 마친 학생을 대상으로 2차 자료를 수집하였다. 1차 자료 수집은 대기 장소에서 기다리는 동안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서술하도록 안내 되었다. 2차 자료 수집은 1차 작성자 중 합격한 학생이 1학년을 이수한 시점인 2015학년도 3월에 수업 외 동아리 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다시 유아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고 설명을 서술하도록 하였다. 자료를 완성한 후 1차 작성한 자료를 제시하고 1차와 2차의 달라진 점과 달라진 이유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였다.

###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Bogdan과 Biklen(1990)과 김병성(1996)이 제시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방법을 사용하여 은유에 나타난 ‘유아’에 대한 이미지 분석하였다[43][44]. 자료 분석은 연구문제별로 분석하였다. 즉, 연구문제 1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유아교육과 지원자

328명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양적 및 질적으로 분석하였고, 연구문제 2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유아교육 지원자 중 유아교육 전공 1학년 과정을 이수한 25명이 지원 시 작성한 자료와 1년 과정 이수 후 작성한 그림 이미지와 이미지가 달라졌다면 달라진 이유에 대해 서술한 자료를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해 내용 분석을 실시한 선행연구[38-40][45]와 마찬가지로 은유 자체보다는 은유가 내포하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즉, 자료에 나타난 그림을 중심으로 서술을 참조하면서 범주화하여 의미 범주를 구성하고 유목화 하였다. 예를 들면, 은유 '새싹'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약한 존재'라는 이미지와 '새로운 시작'이라는 다른 의미를 내포할 경우 같은 그림으로 표현되었다 하더라도 의미에 따라 다른 범주로 구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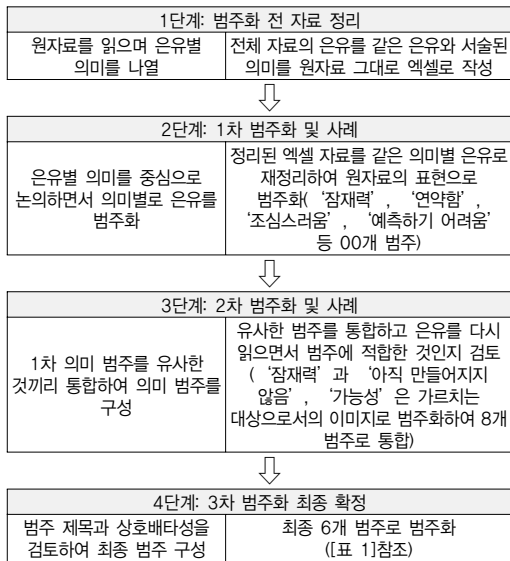


그림 2. 내용분석 과정

자료 분석 과정은 [그림 2]와 같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모든 자료가 유목화 되고 각 유목들이 배타적으로 될 때까지 반복하였다. 또한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와 은유를 사용한 연구경험이 있는 유아교육전문가 1인이 범주와 내용의 타당성을 검증하면서 최종 유목화를 일치시켜 나갔다. 최종 분석된 유목들의

명칭은 입학 전 이미지와 입학 후의 이미지를 비교하되, 연구대상자들의 의도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그들이 나타낸 언어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1단계에서는 모든 자료를 읽으면서 나타난 은유를 나열하고 그림 은유와 서술에 나타난 의미를 도표로 정리하였다. 2단계는 1차 범주화과정으로 정리된 은유를 다시 반복하여 읽고 의미를 검토하면서 같은 의미를 지닌 은유끼리 범주화하였다. 예를 들면, '새싹'으로 표현한 그림 은유는 그 의미가 '잠재력을 지닌 존재'와 '연약한 존재'인 것으로 다르게 설명된 것은 다른 범주로 구분하였다. 3단계 분석과정에서는 1차 범주 통합과 조정과정으로 범주가 유사한 것끼리 통합하고 범주 내에 다른 의미가 포함된 것을 재조정하였다. 예를 들면, '어리고 약한 존재'인 '아기 새'로 표현된 은유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흙'으로 표현된 '도자기'는 '가르치고 이끌어 주어야 하는 존재 이미지'로 통합하였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범주화된 은유들 중 유사한 의미 범주를 재조정하거나 통합하였고 다시 자료를 읽으면서 범주 간 이미지가 상호 배타적인지를 확인하고 최종 확정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유아교육과 지원자들의 유아에 대한 이미지

유아교육과 지원자들이 표현한 유아의 이미지를 분석한 최종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성, 사랑, 관심이 필요한 존재'가 40.5%(133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 존재'(73명, 73%), '자유분방하고 개성이 있는 존재'(43명, 13.1%), '밝고 순수하여 행복을 주는 존재'(38명, 11.6%), '학습과 성장 잠재력을 가진 존재'(28명, 8.5%)의 순이었고 '어리고 연약한 존재'는 4.0%(13명)으로 가장 적었다.

'정성, 사랑, 관심이 필요한 존재'의 이미지로 표현된 그림 은유는 주로 잘 돌보아야 하는 어린 동물(새, 알, 병아리), 작은 식물이었고 직접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유아의 모습으로 나타내기도 하였다.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 존재'의 이미지로 표현된 그림 은유는 '도자기',

‘백지’, ‘새싹’ 등과 같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물로 은유되었다. ‘자유분방하고 개성이 있는 존재’ 이미지는 주로 튀고 굴러가서 예측하기 어려운 공으로 은유되었다. ‘밝고 순수하여 행복을 주는 존재’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한 천사로 은유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학습과 성장 잠재능력을 가진 존재’ 이미지는 ‘스펀지’, ‘스케치북’, ‘블럭’ 등과 같이 유연하고 가능성이 있는 사물로 은유되었다. ‘여리고 연약한 존재’ 이미지는 ‘아기 천사’, ‘비누방울’로 표현되었다.

표 1. 지원자의 유아에 대한 그림 이미지 범주

이미지 범주	그림 은유 사례	빈도(%)
정성, 사랑, 관심이 필요한 존재	둥지 속 알, 작은 새, 식물, 아기새	133( 40.5)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 존재	도자기, 그림책, 백지, 나무	73( 22.3)
자유분방하고 개성이 있는 존재	공, 요술공, 풍선, 구름	43( 13.1)
밝고 순수하여 행복을 주는 존재	천사	38( 11.6)
학습과 성장 잠재능력을 가진 존재	스펀지, 백지, 현천, 블럭	28( 8.5)
여리고 연약한 존재	아기천사, 구슬, 비누방울	13( 4.0)
계		328(100.0)

은유에 포함된 구체적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성, 사랑, 관심이 필요한 존재

유아교육과 지원자들은 유아를 연약하고 보호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에 제시된 ‘둥지 속의 새’, ‘온실 속 식물’, ‘비누방울 속 아기’처럼 조심스럽고 잘 돌보아야 하는 유아의 이미지, ‘부모의 테두리 속 어린 아이’와 ‘어미새가 돌보는 아기 새’의 이미지는 교사로서의 돌봄(caring)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유아는 여리고 연약한 존재라는 일반적인 유아에 대한 이미지와 다르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 정성, 사랑, 관심이 필요한 존재 이미지

2)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 존재

유아교육과 지원자들의 유아에 대한 이미지는 성인(교사)에 의해 무엇인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미지는 잠재능력을 가진 이미지와는 다른 것으로 사진첩이나 도자기처럼 유아의 능력 발현보다는 교육과 외부의 영향력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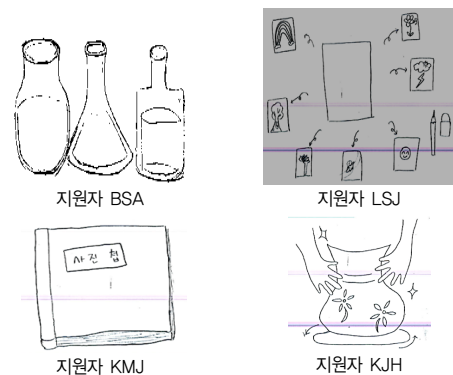


그림 4.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 존재 이미지

3) 자유분방하고 개성이 있는 존재

유아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예측할 수 없는 풍선이나 ‘뚱뚱 튀는 공’처럼 움직이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자유로움을 각각 독특한 개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미지는 유아의 행동과 유아기의 특징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5. 자유분방하고 개성이 있는 존재 이미지

4) 밝고 순수하여 행복을 주는 존재

유아교육과 지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유아에 대한 이미지는 ‘천사’로 은유되었고 천사는 순수함과 밝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미지는 유아교육 지원자들이 “유아가 좋아서 지원한다.”는 것과 유사한 결과로 유아에 대한 막연한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경험이나 지식에 의하기 보다는 바람직한 이상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6. 밝고 순수하여 행복을 주는 존재 이미지

5) 학습과 성장 잠재력을 가진 존재

유아교육과 지원자의 유아에 대한 이미지는 스스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양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특징을 가진 ‘블럭’과 물을 흡수하는 ‘스펀지’는 ‘백지’나 ‘물’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외부의 힘에 의해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잠재력을 갖춘 존재 이미지를 나타낸 것으로 이러한 결과는 유아에게 주도적으

로 활동할 수 있는 경험과 환경 제공을 강조하는 교사 역할과 교육철학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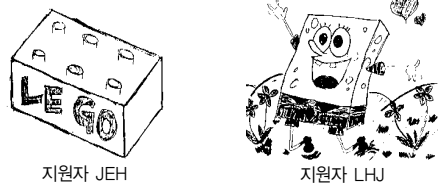


그림 7. 학습과 성장 잠재력을 가진 존재 이미지

6) 여러고 연약한 존재

유아교육과 지원자들이 인식한 유아에 대한 이미지는 보호막에 둘러싸인 아기천사와 쉽게 깨어질 수 있는 맑은 유리로 표현되는 소중하고 연약한 이미지였다. [그림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천사의 모습으로 은유되었지만 그것이 밝고 순수한 행복을 주는 이미지의 천사라기보다는 여러고 연약한 천사이고 이런 유아는 다치거나 깨어지지 않도록 잘 돌보아야 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유아 자체의 어리다는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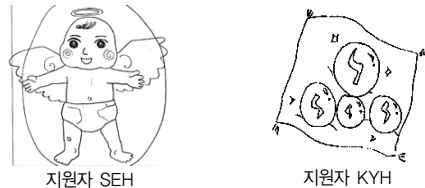


그림 8. 여러고 연약한 존재 이미지

2. 유아교육과 입학 후 유아에 대한 이미지 변화

유아교육과 입학 후 1년 과정을 이수한 후 유아에 대한 이미지는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표 2. 입학 후 유아에 대한 그림 이미지 범주

이미지 범주(빈도)	그림 은유 사례	%
스스로 발전 역량이 있는 존재 (13)	크레파스, 풍차, 동화책, 피아노건반	52
발달적 특성을 가진 독특한 존재(7)	흰천, 거울, 시작, 백지, 새싹	28
상호영향을 미치는 이미지(5)	거울, 앵무새, 비타민, 바람,	20
총계(25)		100.0



1) 가꾸고 보살펴야 하는 존재에서 스스로 발전 역량이 있는 존재로 인식 변화

입학 전 유아교육과 지원자들의 유아에 대한 이미지는 가꾸고 만들어 갈 수 있는 존재였다. [그림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입학 전에는 유아를 ‘새싹’으로 은유하여 잠재력은 있으나 누군가가 잘 가꾸어야 하는 나무처럼 성인이 돌보고 잘 가꾸어야 나무로 자라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예비유아교사로 1년을 지낸 시기에 유아에 대한 이미지는 독특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여 ‘피아노 건반’으로 은유하였다. 이는 입학 후 유아교육을 전공하면서 유아는 성인이 만들고 가꾸는 존재라기보다는 자신의 잠재력 역량을 가진 개별 존재로, 각각 다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로 이미지가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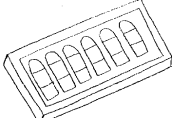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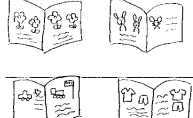
<1차(지원자 시기)>	<2차(예비유아교사 시기)>
	
<p>여리고 약한 존재이지만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웅장한 나무로 자랄 수 있다. (지원자 EJM)</p>	<p>각각 제 소리를 지닌 피아노 건반처럼 유아도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비유아교사 EJM)</p>
	
<p>유아는 교사의 사랑과 보살핌 아래서 열매를 틔울 수 있는 꽃이다.(지원자 GEJ)</p>	<p>유아는 크레파스다. 왜냐하면 개성, 성격 모든 것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발달특성, 성격이 각각 다르고 개성이 있다.(예비유아교사 GEJ)</p>
	
<p>동지속의 어린 아기새이다. 따뜻한 사랑과 관심과 정성스러운 손길이 꼭 필요하다. (지원자 KSJ)</p>	<p>유아는 동화책이다. 동화책도 여러 가지가 있고 동화책을 읽으면 재미 있고 좋은 느낌을 받는 것처럼 유아는 개개인이 모두 다른 특성이 있으며 모든 책에는 교훈이 있는 것처럼 배울 점이 있기 때문이다.(예비유아교사 KSJ)</p>

그림 9. 예비유아교사의 유아에 대한 이미지 변화1

이러한 변화의 이유로 예비교사는 성인(교사)의 입장에서 유아를 생각했다면 전공 교과목 특히, 유아발달과 같은 과목을 이수하면서 유아의 입장에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었고 나름의 독특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유아를 바라보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 전에는 그냥 유아를 잘 자라게 해주는 역할이 교사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유아는 약한 존재이고 모든 유아가 어떻게 해야 더 잘 자라게 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입학 후에는 각각의 유아마다 특성이 있으며 그것을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것 같다.(예비유아교사 EJM)

입학 전에는 내가 교사로서만 생각하고 교사의 역할을 잘 모르고 막연하게 그렸고, 지금의 그림은 교사보다는 유아의 특징을 중심으로 그렸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별 지식이 없었지만 막연히 아이들이 좋았고 지금은 전문적 지식이 생겼기 때문이다.(예비유아교사 GEJ)

2) 유아의 모습에 대한 이미지에서 유아기 발달적 특성을 가진 독특한 존재 이미지로 변화

입학 전에는 ‘천진난만함’, ‘밝은 모습’과 같이 보여지는 모습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하였으나 입학 후에는 유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변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고려를 하게 되어 유아의 겉모습이 아닌 유아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어 ‘흰 천’, ‘거울’, ‘스펀지’ 등과 같이 유아기의 특성에 초점을 둔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따라서 그림 표현도 입학 전에는 유아의 모습을 그렸으나 입학 후에는 유아의 특성을 나타내는 은유된 다른 사물로 유아를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는 예비유아교사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고려가 유아에 대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 전에는 그냥 유아가 귀엽고 사랑스러운 존재라고만 생각했다. 유아의 특징이라던가 성장해 가는 과정이라던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전공을 공부하면서 주변의 환경과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교사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구체적인 생각이 많이 생긴 것 같다.(예비유아교사 JJA)

입학 전에는 단순히 유아를 생각하고 평소 보았던 유아의 겉모습만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볼 수 있게 된 것 같다. 유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전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생각하게 되었다.(예비유아교사 LGY)


<1차(지원자 시기)>	<2차(예비유아교사 시기)>
 <p>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과 때 묻지 않은 해맑은 웃음이 떠오른다.(지원자 LGY)</p>	 <p>유아는 흰 천과 같다. 유아는 주변의 환경, 주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성장한다. 유아가 보고 배우는 것이 흰 천을 염색하는 물감과 같은 것이라 생각했다.(예비유아교사 LGY)</p>
 <p>장난치고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생각하여 그렸다.(지원자 JJA)</p>	 <p>유아는 거울이다. 유아는 어른의 행동을 보고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예비유아교사 JJA)</p>
 <p>밝은 얼굴로 노래 부르는 모습 (지원자 MJY)</p>	 <p>유아는 스펀지다. 유아도 모든 것을 흡수하며 배우기 때문에 어른이나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고 느꼈다.(예비유아교사 MJY)</p>

그림 10. 예비유아교사의 유아에 대한 이미지 변화2

3) 돌보고 보살펴야 하는 존재에서 영향을 상호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변화

입학 전 유아에 대한 이미지는 성인이 무엇인가를 해 주고 보살펴야 하는 연약하고 어린 존재의 이미지로, '아기새'나 '씨앗'의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입학 후에 그린 그림은 '불어오는 바람', '나를 비추는 거울'로 나타나서 유아가 예비교사로서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지가 변화한 이유는 교육봉사와 같은 기회를 통해 실제 유아를 경험으로 인해 이미지가 변화하였다고 하였으며 입학 전 막연히 긍정적이고 내 삶과 직접 관계는 없는 천사와 같은 이미지에서 직접적 영향력을 미치고 심지어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하는 이미지로 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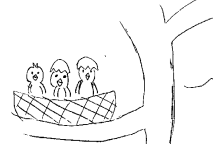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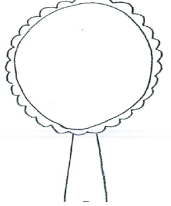
<1차(지원자 시기)>	<2차(예비유아교사 시기)>
 <p>이제 갓 알을 깨고 나온 아기새 처럼 소중한 존재이고 돌봄이 필요한 존재 (지원자 YJM)</p>	 <p>유아는 바람이다. 실랑실랑 다가와 나에게 좋은 기분이 들도록 하는 것, 보람을 주조 뿌듯함을 주고 고하고 당황하게 하기도 한다. (예비교사 YJM)</p>
 <p>유아는 아직 자라지 않은 씨앗과 같다. 그래서 유아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햇빛이나 물의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지원자 GHI)</p>	 <p>유아는 거울이다. 유아를 통해서 나의 모습이 비춰지고 나의 행동을 유아가 따라하고 동화되기 때문에 교사는 본보기가 되고 바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예비교사 GHI)</p>

그림 11. 예비유아교사의 유아에 대한 이미지 변화3

입학 전 그림은 유아하면 딱 떠오르는 것을 그렸는데 교육봉사를 통해 유아들과 직접 상호작용을 해보면서 내게 힘이 되거나 우울함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미지를 그렸다. (예비유아교사 YJM)

입학하기 전에는 유아를 실제로 많이 접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입학하고 공부하고, 교육봉사를 하면서 유아를 실제로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예비유아교사 GH1)

####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유아교육과 지원자들이 가진 유아에 대한 이미지와 입학 후 유아에 대한 이미지에 변화가 있는가를 알아본 것이었다. 유아교사를 희망하는 유아교육과 지원자와 예비유아교사가 가진 유아에 대한 이미지는 교사로서 자신의 역할 정체성과 관련 될 수 있고 이는 예비교사양성과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과 지원자들의 유아의 이미지는 ‘정성, 사랑, 관심이 필요한 존재’,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 존재’, ‘자유분방하고 개성이 있는 존재’, ‘밝고 순수하여 행복을 주는 존재’, ‘학습과 성장 잠재능력을 가진 존재’ ‘여리고 연약한 존재’로 나타났다. 대체로 유아교육과 지원자들은 유아가 어리고 연약하여 잘 보호해야 하고, 아직 어리지만 발전가능성이 있는 존재이므로 성인이 잘 돌봐주고 가르친다면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든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적 지식은 없으나 막연히 유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아교육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 초기에 유아에 대한 이미지를 알아본 정진, 성원경, 이춘자, 조인경의 연구(2007)[46]와 같은 결과이며 유아교육을 지원하는 동기가 “유아가 좋아서”라는 고동섭(2001)[47]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유아를 교육의 대상으로 직접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광고나 각종 매체에서 사용하는 유아의 이미지와 유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결과라 해석 할 수 있다.

예비교사양성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하는 결과는 ‘학습과 성장 잠재능력을 가진 존재’와 달리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 존재’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교사역할 이미지와 관련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학습자에 대한 이미지는 교사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이미지와 관련되는 바, 이는 독립적이면서 자율적인 존재로서의 유아에 대한 이미지와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입생 때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미지가 수업 실제에서 교사주도적인 수업방식으로 고착되지 않도록 교사양성과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예비유아교사와 예비초등교사가 인식한 교사는 온정적이고 반응적이며 유아의 학습에 동기를 유발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한 결과 [48]와 유치원 교사의 핵심역량[49]과 유치원에서의 좋은 수업[50]의 연구 결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수자로서의 유치원 교사의 이미지를 만들고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아교육과 지원자들은 유아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하라고 할 때 유아의 행동특성이나 모습과 관련된 이미지가 나타난 결과는 ‘천사’와 ‘공’으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순수하고 밝은 모습과 활발히 움직이고 행동을 예측할 수 없음을 표현하였다. 유아에 대한 이러한 이미지는 유아에 대한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유아’ 혹은 ‘어린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20세기 초 이후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아동관과 구분되는 어린이의 자기활동성을 강조하고 어린이에 대한 소중함과 사회적 가치를 높이려 했던 방정환의 사상[8]으로부터 시작되어 동요에서 어린이를 ‘새싹’으로 표현하는 것, 예를 들면 최승원 작사·작곡(1983) ‘새싹들이다’, 유아용 상품 광고 등에 유아를 ‘우리의 미래’로 표현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들과 유사한 것이다.

둘째, 입학 전에 비해 1학년을 마친 예비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유아에 대한 이미지는 변화가 있었다. 입학 전 가르쳐야 하는 대상에서 스스로 잠재력이 있는 개체로 인식하게 되었고, 유아의 모습과 행동에 대한 관심에서 발달적 특징에 대한 관심으로 변화하였으며, 연약하고 보살펴야 하는 존재에서 예비교사인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존재로 이미지가 변화하였다. 예비유아교사들이 유아에 대한 이미지가 변화한 요인으로 서술한 내용을 보면, 입학 전에 비해 전공(유아발달) 학

습을 통한 유아의 내면과 발달특성에 대한 이해와 교육 봉사를 통해 유아를 직접 대하는 경험이라고 하였다. 유아발달과 관련된 수업의 영향은 발달단계와 성장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장과 학습가능성을 가진 유아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교육 봉사를 통해 유아를 직접 대해보고 상호작용해보면서 실제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아교육과 입학 전과 입학 후 예비유아교사의 유아에 대한 이미지가 변화한 것은 예비유아교사양성과정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 예비유아교사는 양성과정동안 전공수업과 교육봉사, 현장학습, 현장실습 등 다양한 형태로 유아교육현장과 유아를 경험하게 되면서 교육대상으로서 유아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고 유아에 대한 이미지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유승연(2013)[40]의 연구 결과에서 한 예비교사도 실습 후 ‘유아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현장의 실재를 경험한 후 통제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되었다’는 것과 1학년 때 가졌던 ‘언제나 친근한 교사이길 바라지만 현실은 보다 복잡한 그물망이며 교사는 다각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례처럼 입학 전 긍정적이지만 매우 추상적이었던 유아에 대한 이미지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차원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아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형성하는가는 교사로서 자신의 역할정체성이나 실제 수행되는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이춘자의 연구(2010)에서 교사의 이미지가 학년이 지남에 따라 달라졌다는 결과와 마찬가지로 예비교사가 양성과정에서 학습하는 교육이론과 유아교육 현장경험, 개인적 경험에 따라 학습자인 유아에 대한 이미지도 변화한다고 볼 수 있다.

교사양성과정에서 예비유아교사의 유아에 대한 이미지변화와 이미지변화를 드러내는 것은 예비유아교사의 교육관 형성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유아에 대한 이미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을 통해 교수스타일에 대한 점검과 그에 따른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실행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아교육현장에서 교사로서의 직무를 원만히 수행하고 자신의 역할 정체성 확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1] 김용익, “초등학교 예비교사들의 눈에 비친 실과 교과에의 이미지”, 한국실과교육학회지, 제16권, 제1호, pp.59-77, 2003.
- [2] 손상희, “지체부자유아에 대한 이미지 형성이 아동들의 태도 변화에 미치는 효과”, 특수아동연구, 제3권, pp.165-194, 2001.
- [3] 최명선, 김영희,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 교사, 친구 이미지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2권, pp.229-249, 2005.
- [4] M. A. Carter and N. D. Roe, “Our image of the child. Procedia,”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Vol.93, No.21, pp.1704-1709, 2013.
- [5] 윤부아, *유아가 인식한 부모 이미지*,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6] 김경철, 채미영, “한국 전래동화에 나타난 아동관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제6권, 제3호, pp.203-218, 2001.
- [7] 심상욱, “현대미술에 나타난 아동화적 성향과 어린이 이미지에 대한 연구”, 미술치료연구, 제9권, 제3호, pp.119-142, 2002.
- [8] 김태오, “소과의 아동관의 교육철학적 검토”, 교육철학, 제18권, pp.21-42, 2000.
- [9] 윤팔중, “속담에서 본 한국인의 아동관”, 교육학연구, 제5권, 제1호, pp.36-46, 1967.
- [10] 우성영, “속담을 통해 본 한국인의 교육관”, 교육논총, 제1권, pp.1078-1108, 1981.
- [11] 정진, 백혜리, “조선 후기 풍속화를 통해 본 아동인식”, 아동학회지, 제22권, 제1호, pp.109-124, 2001.
- [12] 홍성태, “지식사회와 어린이- ‘뚝뚝이’ 이데올로기와 학력주의의 내면화”, 문화과학, 제21호, pp.53-70, 2000.
- [13] 조문현, 박현주, “TV광고에 나타난 어린이의 이미지 분석”, 어린이미디어연구, 제4권, pp.21-39, 2005.
- [14] 이영자, “교사의 아동관이 교사-유아간의 언어

- 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교육학 연구, 제23권, 제1호, pp.113-133, 1985.
- [15] 이원영, 주영희, 김경철, *유치원의 교육목적에 관한 연구*, 서울: 창지사, 1994.
- [16] 최애경, 강영심, “예비유아교사의 장애아동에 대한 이미지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제11권, 제3호, pp.27-42, 2007.
- [17] 강인애, *우리시대의 구성주의*, 서울: 문음사, 2003.
- [18] J. D. Novak and D. B. Gowin, *Learning how to learn*. Cambridge, NY: University Press, 1984.
- [19] I. M. Kinchin and D. B. Hay, “How a qualitative approach to concept map analysis can be used to aid learning by illustrating patterns of conceptual development,” Educational Research, Vol.42, No.1, pp.43-57, 2000.
- [20] Y. W. Lin, *Early childhood student teachers' images and their classroom practice*, ERIC Document Production Service No. ED 370916, 1994.
- [21] R. E. Scott, *Psychological and Social Correlates of International Images*, In H. C. Kelman(Ed.), *Internal Behavior*, NY: Halt, Kinehart and Winston, 1986.
- [22] 안득기, “대북 이미지의 이중구조와 통일 의식 분석”,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22권, 제2호, pp.206-224, 2009.
- [23] 서보윤, “대학 이미지광고 메시지 구성에 관한 연구”, 광고홍보연구, 제9권, pp.183-201, 2001.
- [24] 이두원, “한국 대학의 상징적 가치체계에 대한 기호학적 해독 연구”, 커뮤니케이션학연구, 제18권, 제3호, pp.131-154, 2010.
- [25] 이금란, *유치원 교사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26] 이춘자, “예비유아교사의 유치원교사에 대한 이미지 변화”, 교원교육, 제26권, 제1호, pp.1-19, 2010.
- [27] 최애경, “예비유아교사의 보육실습 전·후에 따른 교사이미지 변화”, 아동교육, 제16권, 제3호, pp.291-302, 2007.
- [28] 하은옥, “교육실습 전·후에 따른 예비유아교사의 교사 이미지 변화”,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2권, 제3호, pp.19-42, 2007.
- [29] S. Weber and C. Mitchell, “Drawing ourselves into teaching: Studying the images that shape and distort teacher education,”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Vol.12, No.3, pp.303-313, 1996.
- [30] D. P. Britzman, “Cultural myths in the making of a teacher: Biography and social structure in teacher education,” Harvard Educational Review, Vol.56, No.4, pp.442-456, 1986.
- [31] M. S. Ball and G. W. H. Smith, *Analyzing visual data*, CA: Sage publication, 1992.
- [32] 박성일, “이미지의 시각적 사고에 관한 연구-대뇌 생리학을 중심으로-”, 혜전전문대학논문집, 제16권, pp.171-190, 1998.
- [33] 이정희, “근대과학에서 시각적 재현의 의미”, 철학논총, 제55권, 제1호, pp.299-322, 2009.
- [34] 김정선, “시각적 의사소통의 이해에 관한 연구”, 미술교육논총, 제18권, 제3호, pp.29-44, 2004.
- [35] 고은성, 이경화, 송상현, “시각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 사이에서 이미지의 역할”, 대한수학교육학회지 <학교수학>, 제10권, 제1호, pp.63-78, 2008.
- [36] A. C. Rule and M. Harrell, “Symbolic drawings reveal changes in preservice teacher mathematics attitudes after mathematics methods course,” School Science and Mathematics, Vol.106, No.6, pp.241-258, 2006.
- [37] J. A. Thomas, L. E. Pedersen, and K. Finson, “Validating the Draw-A-Science-Teacher-Test Checklist(DASTT-C): Exploring mental models and teacher beliefs,” Journal of Science Teacher Education, Vol.12, No.3, pp.295-310, 2001.
- [38] 박은혜, 조운주,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한 유아교

사 이미지의 변화 탐색”, 유아교육학논집, 제11권, 제4호, pp.25-246, 2007.

- [39] 유승연, “유아예비교사의 메타포활용을 통한 전문성 함양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20권, 제1호, pp.241-276, 2013.
- [40] 장정윤, “예비유아교사의 수탁에 대한 이미지”, 육아지원연구, 제8권, 제2호, pp.101-130, 2013.
- [41] G. Lakoff and M. Johnson,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http://stdweb2.korean.go.kr/search/Lost-dic.jsp>, 1980.
- [42] M. Maxson and R. Sindelar, “Images revisited: Examining preservice teachers’ ideas about teaching,” *Teacher Education Quarterly*, Vol.25, No.2, pp.5-26, 1998.
- [43] R. C. Bogdan and S. K. Biklen, *교육연구의 새 접근: 질적 연구*(신옥순 역), 서울: 교육과학사, 1990(원서 1982 출판).
- [44] 김병성, *교육연구방법*, 서울: 학지사, 1996.
- [45] 성원경, 이춘자, “그림 그리기를 통한 예비유아교사의 수업 이미지 분석 - 교육실습전·후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제19권, 제4호, pp.75-100, 2013.
- [46] 정진, 성원경, 이춘자, 조인경, “유아교육과 신입생의 유아에 대한 이미지”, *아동교육*, 제16권, 제4호, pp.261-270, 2007.
- [47] 고동섭, *유아교육과 신입생의 특성*,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48] 이미숙, “예비 유아교사와 예비 초등교사 역할 인식”, *교원교육*, 제23권, 제2호, pp.63-80, 2007.
- [49] 박혜경, “유치원 교사의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유아교육학논집*, 제16권, 제6호, pp.189-211, 2012.
- [50] 성원경, 이춘자, 김현지, “좋은 수업에 대한 유치원교사의 인식”, *한국교육*, 제36권, 제2호, pp.49-73, 2009.

저 자 소 개

성 원 경(Won-Kyung Sung)

정회원



- 1986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문학사)
- 199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교육학석사)
- 2006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문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 유아교사교육, 교수학습방법